

대한민국 건강 팀플레이

심평원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의료관계자 여러분의 헌신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합리적인 의료소비 덕분에
대한민국 건강 팀플레이를 만들어 갑니다

진심과 공평, 심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고모델
국가대표 골키퍼 조현우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2019 November + December 1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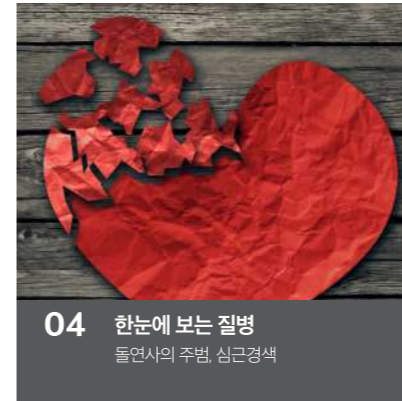
Vol. 173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문화를 열어가는 국민의료평가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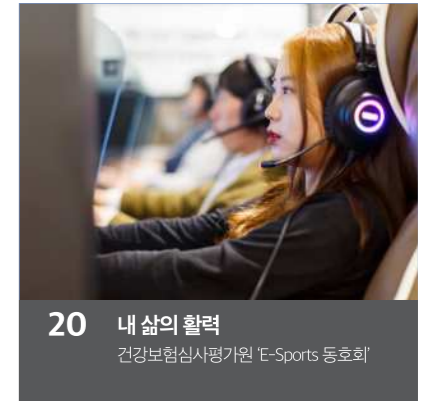
2019 November + December 11/12 Vol. 173



04 한눈에 보는 질병
돌연사의 주범, 심근경색



16 우리 지역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



20 내 삶의 활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Sports 동호회'



22 건강한 동행
지역민의 충실한 건강지킴이,
화순전남대병원



29 문화 산책
따사로운 기억으로 추위를 녹인다,
서울 속에 간직하고 싶은 나날



32 그곳에 가면
초량 이바구길에 핀 이야기꽃



36 마음 연구소
밤만 되면 식욕이 돋는다, 야식 중후군



38 HIRA News
바레인 수출사업 성공적 완료
기념행사 개최 등



44 의약계 안내사항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실시
(2020년, 2주기 2차) 등

2019 11/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만드는 건강정보 전문지 Vol. 173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Contents

건강한 이야기

- 04 **한눈에 보는 질병**
돌연사의 주범, 심근경색
- 08 **질병 A to Z**
평소 관심과 빠른 대처가 중요한 심근경색

행복한 이야기

- 14 **HIRA 톨아보기**
건강보험의 바로고 합리적인 기준을 만듭니다
- 16 **우리 지역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
- 20 **내 삶의 활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Sports 동호회'
- 22 **건강한 동행**
지역민의 충실한 건강지킴이, 화순전남대병원
- 26 **정책·이슈**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에 따른 분석심사 선도사업 안내
- 29 **문화 산책**
따사로운 기억으로 추위를 녹이다,
서랍 속에 간직하고 싶은 나날
- 32 **그곳에 가면**
초량 이바구길에 핀 이야기꽃
- 36 **마음 연구소**
밤만 되면 식욕이 돋는다, 야식 증후군
- 38 **HIRA News**
바레인 수출사업 성공적 완료 기념행사 개최 등
- 40 **독자의 소리**
대구시 달서구 김태영 님 등

유익한 이야기

- 의약계 안내사항**
- 44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실시**
(2020년, 2주기 2차)
- 46 **관상동맥우회술 5차 적정성 평가 결과**
- 50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전산통보 시행**
- 52 **수지접합 전문병원 지정 제도**
- 54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 기준 개선**
- 57 **결핵 적정성 평가 결과(2018년도, 1차)**
- 60 **당뇨병 관리를 위한 포스터·리플릿 활용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온라인 홍보 채널에서도 다양한 건강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홈페이지: <http://www.hirasabo.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ok_hira
 팟캐스트 <오케바디>: <http://www.podbbang.com/ch/9584>
 심평TV: <http://hiratv.or.kr>

* 책자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 장애인을 위한 2차원 음성 바코드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pecial Theme.

심근경색

Myocardial Infarction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웹진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HIRA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발행일_ 2019년 11월 25일 통권_제173호 발행처_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소_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발행인_김승택 편집인_김형호
 기획_디자인_유니크플러스 인쇄_세원문화사
 고객센터_1644-2000 / 033-739-0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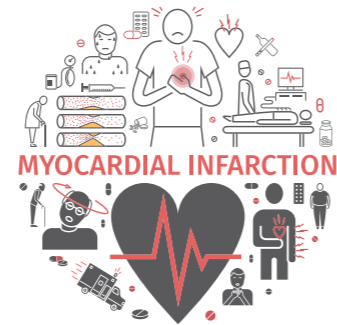
Myocardial Infarction

돌연사의 주범 심근경색

서구화된 식생활과 노인 인구의 증가로 심근경색 발병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심근경색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4년 8만 2,952명에서 2018년 11만 773명으로 최근 5년 사이 30%가 넘게 증가했다. 돌연 생명을 위협하는 심근경색, HIRA 보건 의료빅데이터를 통해 이에 관한 다양한 통계를 알아보자.

*주의사항

본 통계는 환자 진료 중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의 호소, 증세에 따라 일차 진단명을 부여하고 건강보험으로 청구한 내용을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로서, 실제 환자 수치와 다를 수 있음.



심근경색(Myocardial Infarction)

심장혈관이 혈전증, 혈관의 빠른 수축(연축) 등에 의해 급성으로 막히는 경우, 심장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급격히 줄어 심장 근육 조직이나 세포가 죽는 상황을 심근경색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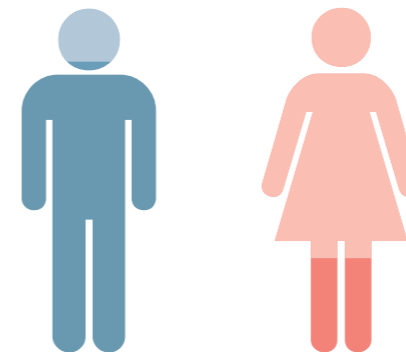
HIRA 보건 의료빅데이터 국민관심질병통계(2018년)

연도별 심근경색 환자수? 꾸준히 증가 추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심근경색을 앓고 있을까? 11만 773명

남성 8만 4,127명 여성 2만 6,646명



환자 1인당 연평균 요양급여비용은? 309만 9,002원

남성 305만 2,715원 여성 324만 5,14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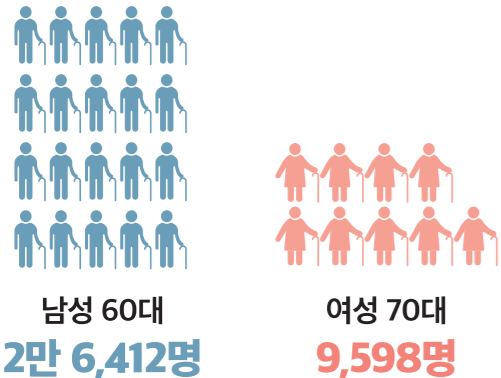
Myocardial Infarction

환자 1인당 연평균 보험자부담금은?
278만 4,490원

심근경색 환자의 1인당 연평균 보험자부담금은 278만 4,490원이며, 남성은 274만 8,614원, 여성은 289만 7,759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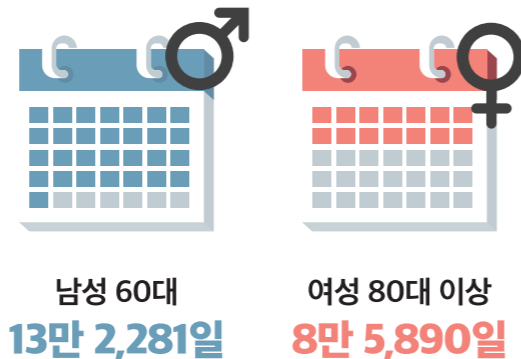
환자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남성 60대, 여성 70대



환자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남성은 60대 여성은 70대이다.
남성은 60대(2만 6,412명) > 50대(2만 4,257명) > 70대(1만 8,068명) 순이며, 여성은 70대(9,598명) > 80대 이상(8,848명) > 60대(5,697명) 순이다.

내원일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남성 60대, 여성 80대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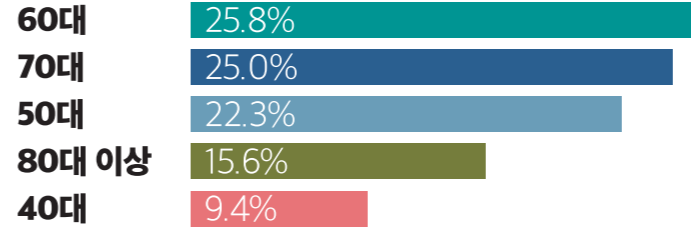
연령구간별 내원일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남성은 60대, 여성은 80대 이상이다.
남성은 60대(13만 2,281일) > 50대(12만 1,548일) > 70대(10만 2,573일) 순이며, 여성은 80대 이상(8만 5,890일) > 70대(6만 1,944일) > 60대(3만 1,371일)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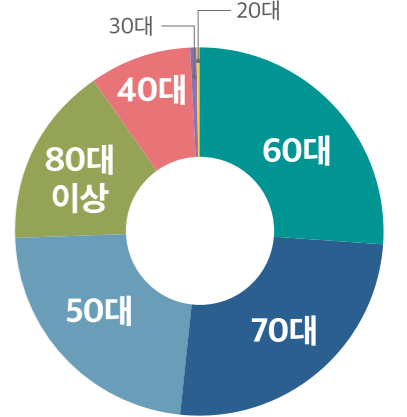
Myocardial Infarction

요양급여비용총액은 어떤 연령대가 가장 높을까? **60대**

[연령대별 요양급여비용총액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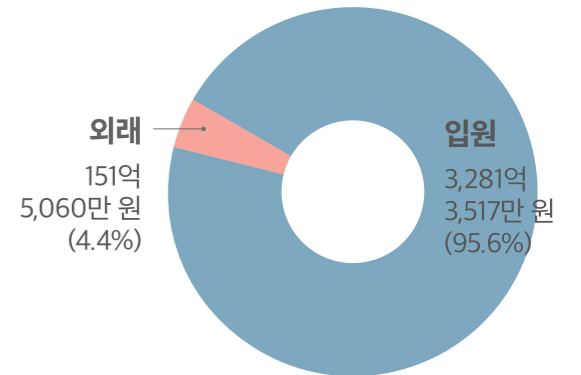


※ 이외 30대(1.8%) > 20대(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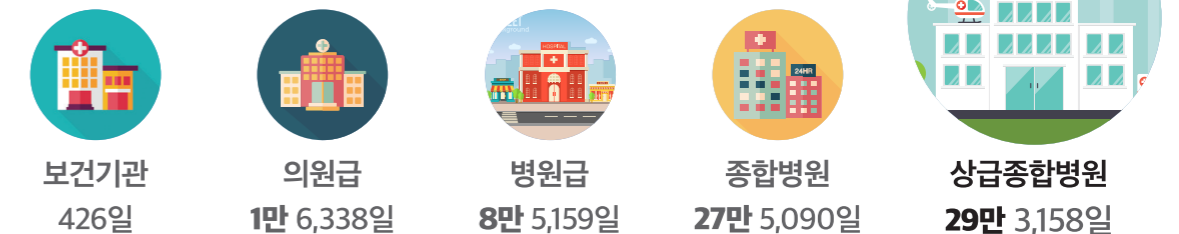


진료형태별 요양급여비용총액 비율은?
입원 95.6%, 외래 4.4%

입원환자의 요양급여비용총액은 **3,281억 3,517만 원**
외래환자의 요양급여비용총액은 **151억 5,060만 원**이다.



내원일수가 가장 많은 요양기관 종류는?
상급종합병원





평소 관심과
빠른 대처가 중요한
심근경색

Myocardial Infarction



겨울이 되면 특히 주의할 질병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심근경색이다.
겨울에는 실내외 온도 차가 커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기 쉬우며 이 경우 혈압이 상승한다.
이때 혈전이 혈관을 막아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면 심장 세포가 죽어 심근경색이 발생한다.
심근경색은 사망률이 높은 질병이기도 하다.
때문에 조기 증상을 알고 증상 발생 시 최대한 빨리 대처해야 한다

심근경색이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동맥경화증, 혈전, 혈관 수축에 의해 좁아지거나 막혀, 심장 근육에 혈액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심근이 괴사되는 질환을 심근경색이라고 한다. 급성 심근경색의 초기 사망률은 30%에 달하고, 사망 환자의 절반 이상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료법의 획기적인 발전에도, 여전히 환자 25명 중 1명은 퇴원 후 1년 이내에 사망하는 무서운 질환이다. 특히 돌연사와 심부전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심근경색의 원인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흡연,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가족력 등이 있고, 이런 위험 요인이 없더라도 심근경색이 갑자기 생길 수 있다. 흡연은 젊은 성인에서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고지혈증(이상지질혈증)도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DL 콜레스테롤), 중성 지방이 높은 경우,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HDL 콜레스테롤)이 낮은 경우 심근경색을 포함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심근경색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등의 혈관 질환이 생기고 뒤늦게 고혈압과 당뇨병

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식습관의 서구화로 비만 환자가 늘고, 특히 30~40대 비만 환자에서 다른 원인 없이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부모, 형제 중 심장병, 뇌졸중 등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도 심근경색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근경색은 기온이 낮아지는 겨울에 더 호발 하는데, 기온이 낮아지면 혈관이 수축되기 때문이다.

심근경색의 증상

심근경색의 가장 흔한 증상은 앞가슴에 나타나는 쥐어짜는 듯한 가슴 통증(흉통)이다. 콧속 찌르거나 찌르는 듯한 통증이 아니라 무거운 것이 꼭 누르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심근경색증 시 가슴의 통증을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심한 통증이라 흔히 표현한다.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아픈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수 분간 통증이 지속하면 심근경색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가슴 통증



이 30분 이상 없어지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 다른 증상으로는 가슴 또는 상복부가 체한 것처럼 답답하거나 무겁게 느껴지면서 갑자기 숨을 쉬기 힘들어지는 호흡곤란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호흡곤란과 함께 가슴 통증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야 한다. 또한, 가슴 통증을 동반하지 않고 구역, 구토 증상만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런 증상은 소화불량 또는 위산 역류 등으로 오인해 쉽게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가슴 통증과 함께 어깨, 목, 팔로 퍼지는 통증이 동반된다면, 심근경색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목 부위가 답답하고 왼쪽 팔이 아프다며 정형외과나 신경외과를 찾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에 진료과를 잘못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치료 시간을 넘기면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가슴 통증과 함께 식은땀이 나며, 얼굴이 창백해지거나 청색증이 생긴다면,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신속하게 병원을 찾아야 한다.

심근경색의 치료

심근경색증이 발생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119안전신고센터로 전화해 즉시 가까운 종합병원 응급실로 가야 한다. 발병 6시간 이내에 병원에 가야 심장의 손상을 줄일 수 있고 12시간 안에 병원에 가야 심근을 성공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 응급실에서 심전도 및 혈액검사를 통해 심근경색이 확인되면, 응급으로 관상동맥 조영술을 실시해 혈전과 동맥경화증으로 막힌 관상동맥을 확인한 다음 관상동맥 중재술(풍선확장술 및 스텐트 삽입술)로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시술을 가능한 한 빨리 시행해야 한다. 관상동맥 중재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상동맥 내에 발생한 혈전을 녹이는 혈전용해제를 투여한다(발병 6시간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고, 늦어도 12시간 이내에 투여해야 한다). 가능하면 90분 이내에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할 수 있는 시설과 의료 인력이 갖춰져 있는 종합병원으로 구급차를 타고 가는 것이 좋다.

관상동맥중재술 후의 약물 치료 및 관리

관상동맥중재술이 성공적으로 시행됐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니다. 항혈소판제(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프라수그렐, 티카그렐러 등), 베타차단제, 지질저하제,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등의 꾸준한 약물 요법을 평생 지속해야 하고, 위험 인자를 찾아 반드시 교정해야 한다(금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의 치료). 또한, 적절한 운동 및 체중 조절이 필요하고, 외래에서 주기적인 심장 검사(혈압, 혈중 지질, 혈당, 심전도, 운동부하 검사, 심초음파 검사 등)를 시행해야 한다. 증상 변화가 있거나 시술 부위의 재협착이 있을 경우 또는 시술 병변의 위치에 따라 추적 관상동맥 조영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심근경색 예방을 위한 식사요법



- ① 밥은 현미, 보리 등을 섞은 잡곡밥이 좋으며 기호에 따라 적정량 혼식한다. 단, 입맛에 맞지 않을 경우 쌀밥을 섭취한다.
- ② 고기, 두부, 생선 등 단백질이 풍부한 반찬을 골고루 섭취하되, 고기는 기름기와 껍질을 제거한 살코기로 섭취한다.
- ③ 채소 반찬은 제철 채소를 이용해 싱겁게 조리한다.
- ④ 간식은 정규 식사 사이에 제철 과일과 우유로 섭취한다.
- ⑤ 전체적인 조리 방법은 지방 섭취를 줄이기 위해 튀기거나 부치는 대신 굽기, 찜, 삶는 방법을 주로 선택하나 맛을 내기 위해 적당량의 식물성 기름(참기름, 들기름 등)을 사용한다.
- ⑥ 염분량은 소금을 기준으로 1일 3g만 추가하도록 하고, 저염식 적응을 위해 조리 시 미리 염분을 넣는 것보다 무염 조리 후 따로 적정량의 저염 소스를 곁들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 ⑦ 지중해식 식단을 실천한다. 즉 붉은 육류나 버터 같은 동물성 지방 대신 전곡류, 채소, 과일, 올리브 오일, 신선한 토마토 등을 주로 섭취하며 영양 균형이 잡힌 식사를 한다.

주의할 식품

- **고지방 어육류:** 갈비, 삼겹살, 육류 껍질과 기름, 장어, 햄류
- **고콜레스테롤 식품:** 내장류, 새우, 오징어, 계란노른자
- **기름진 음식:** 탕류, 중국 음식, 튀김류, 전류
- **염장 식품:** 김치류, 젓갈류, 장아찌류, 건어물 및 자반 생선류
- **가공식품:** 햄류, 통조림류, 라면
- **국물류:** 국, 찌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요리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수하고 담백한 청국장 고등어조림

재료(2인분)

고등어 1마리, 양파 1/4개, 무 1cm, 대파 1/2대
청국장 1/2컵, 다진 마늘 1작은술, 고춧가루 1작은술,
다식물 2컵

요리법

- ① 양파는 굵게 채 썰고 무는 4등분 한다.
대파는 어슷하게 썬다.
- ② 손질한 고등어는 먹기 좋게 토막 낸다.
- ③ 다식물에 청국장과 마늘, 고춧가루를 섞어 양념장을 만든다.
- ④ 냄비에 무를 깔고 고등어를 올린다.
- ⑤ 준비한 청국장 양념을 올리고 센 불에서 시작해 끓어오르면 양파와 대파를 올리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힌다.

심근경색 예방을 위한 건강 식단 2종

평소 건강 식단을 잘 지키면
심근경색 예방에 도움이 된다.
서울백병원 심장내과 조성우 교수가 추천한
식습관을 바탕으로 맛있고
영양도 풍부한 요리 2종을 만들어 봤다.

아삭아삭 사과 당근 샐러드

재료(2인분)

당근 1/2개, 사과 1/2개, 양파 1/8개, 양배추 적당량,
양상추 1/4통, 굵게 다진 견과류 2큰술, 소금 1/2작은술

드레싱

디종 머스터드 2작은술, 설탕 1/3작은술,
레몬즙 1큰술, 올리브오일 4큰술

요리법

- ① 채 썬 당근을 소금에 30분간 절인다.
- ② 사과, 양파, 양배추는 각각 채 썰고 양상추는 손으로 뜯어 준비한다.
- ③ 아몬드나 견과류는 굵게 다진다.
- ④ 디종 머스터드에 설탕, 레몬즙을 넣고 올리브오일을 조금씩 부어가며 잘 섞는다.
- ⑤ 절인 당근과 사과, 양파, 양배추를 섞고 드레싱에 버무린다.
- ⑥ 그릇에 양상추를 깔고 샐러드를 담은 후 견과류를 뿌린다.

전문의가 추천하는 심근경색 예방 식습관

• 붉은 고기 섭취를 줄이세요.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붉은 고기의 섭취를 줄이고, 불포화지방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생선 섭취를 늘리세요.

등푸른생선, 고등어, 연어, 참치, 송어와 같은 생선은 심장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 염분 섭취를 줄이세요.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 우리 몸은 이를 낮추기 위해 혈액량을 늘리게 되고 그로 인해 혈압이 높아지게 됩니다. 고혈압은 심근경색의 대표적인 위험 인자입니다.

• 견과류를 섭취하세요.

호두, 피칸, 아몬드, 땅콩 등의 견과류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특히,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심혈관, 뇌혈관 질환 위험을 줄여줍니다.

•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 채소를 많이 드세요.

과일과 채소에는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C가 풍부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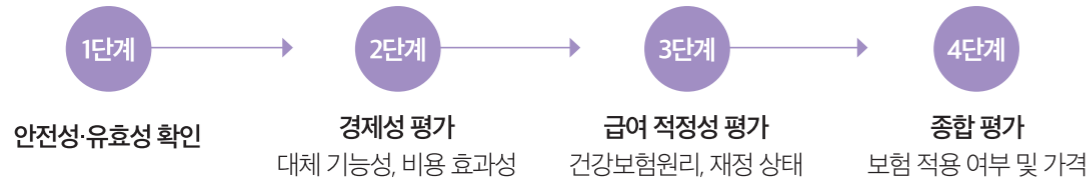
HIRA 톺아보기

*'톺아보다'는 순우리말로 '살살이 더듬어 뒤지면서 찾아보다, 톺아 나가면서 살피다'라는 뜻입니다.

건강보험의 바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만듭니다 건강보험 기준 설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이 안전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행위·약제·치료재료의 건강보험 적용 방법, 절차, 범위, 상한 및 제외 대상 등 기준을 정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기준 설정을 소개합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평가 절차



건강보험 적용 대상과 비용 결정

의료기관, 제약사, 치료 재료 업체 등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새롭게 개발된 의료행위·약제·치료재료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가격을 평가해 결정합니다.



건강보험 급여 기준 설정

의·약학적 타당성과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해 의료 행위·약제·치료재료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설정하고 임상 현실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급여 기준 공개

-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제도·정책 > 보험 인정 기준
-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biz.hira.or.kr) > 심사기준종합서비스 > 심사 기준

의료행위·약제·치료재료의 보험 가격 관리

의료행위 상대가치점수 개정, 약제·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 및 가격 재평가 등을 통해 적정 보험가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대가치점수란?

의료행위의 가치를 각 행위 간 상대적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의 3가지 요소로 구성

우리나라 의료현실을 반영한 환자분류체계 개발·관리

의료기관 간 진료비나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의 환자 구성상태가 동일해야 하며, 이를 보정하는 도구로 환자분류체계가 활용됩니다.



환자분류체계란?

진단, 시술, 기능 상태 등을 이용해 환자를 임상적 의미와 의료자원소모 측면에서 유사한 그룹으로 분류하는 체계



지원만의 특화 서비스로 지역의료 발전을 도모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

대구지원은 의료 현장과의 유기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대구·경북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들이 추구하는 소통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4차 산업 시대에 발맞춘 의료 빅데이터를 통한 공유 가치 창출에 대해 알아본다.



소통에 대한 고민, '고객 최우선' 서비스로 이어져

2000년 7월 1일 출범한 대구지원은 대구·경북지역 512만 명 주민과 9,600여 개의 요양기관을 담당한다. 지난해 기준 1억 4천여 건, 약 7조 3,200억 원의 진료비 심사를 수행했다. 또한, 지역 의료계와의 수시 소통, 의료현장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보건으로 발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심평원의 업무 특성상 지역의료기관 등 의료단체와의 유기적인 관계 유지가 필수적이다. 본원을 비롯해 모든 지원의 업무가 현장 방문을 기본으로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구지원 역시 오랫동안 현장과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왔다.

작년부터 시작한 블로그 운영이 대표적인 예다. 기존에 문서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제공하던 정보들을 온라인을 통한 상시 열람 및 소통이 가능하게 '의협심(의약단체와 협업하는 심평원)이라는 이름의 블로그'를 마련해서 운영 중에 있다. 각 요양기관은 해당 블로그를 통해 주요 정책이나 제도 변경, 개별 요양기관만의 특화된 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받는다. 실제로 블로그 및 SMS로 신고 방법 안내를 한 항목 중 '휴가철 대진신고 누락 심사 불능'은 1만 1,695건에서 3,619건으로 낮아졌고, '장비 미신고로 인한 심사 조정'은 1만 2,800건에서 7,675건으로 낮아지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관내 의약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료 발전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펼치는 '지역의료계와 함께 하는 현장 중심 상생발전 포럼'도 같은 맥락이다. 대구지원은 포럼을 통해 의약단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의 실질적 의견을 수렴해 이를 기반으로 향후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등 꾸준한 상호보완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영현 대구지원장은 "주민들의 건강권 증진과 의료 환경 개선의 파트너인 지역의료기관 및 의료단체들과 협력적이고 상생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자신한다"라며 "지난해 관할 구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93.6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획득했으며, 해피콜 종합만족도 점수도 85.4점을 얻어 전 지원 1위라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밝혔다.

요양기관이 선택적으로 시행하던 '심사단계 청구오류 수정



서비스'의 개선 보완은 소통의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는 대표 사례다. 요양기관의 청구 내역 중 1차 전산 심사 과정에서 청구오류 사례(장비미신고, 구입증빙 자료 미제출 건)가 발견되면, 해당 기관에 이러한 내용을 SMS 등으로 전달한 후 2일의 추가 정정 기간을 주는 것이다.

이 지원장은 "심사단계 청구오류 수정 시스템은 요양기관 편의 제고와 불필요한 사후 이의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해당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양기관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중재도 의료계가 참여하는 등 방법을 전환하여 요양기관 특성에 맞춘 정보제공과 상담이 가능하게 했다.

소통의 핵심은 결국 사람이다. 주민들을 위한 의료 질 및 환경 개선에 대구지원과 요양기관이 편을 나누기보다는 실효적 소통으로 대구·경북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대구지원의 기분을 중시하는 행보가 더욱 특별하게 다가온다.

의료 빅데이터로 새로운 가치 창출 나서

대구지원은 4차 산업 시대를 맞아 새로운 혁신을 준비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축적한 의료 빅데이터의 활용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지원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오래전부터 보유한 의료 정보의 활용 방안을 고민해 왔다”며 “지역에 특화된 의료 정보를 보유한 지원 역시 적극적인 정보 활용의 필요성을 동감했다”라고 말했다.

대구지원의 빅데이터 활용 방안 핵심은 ‘수요자 중심 정보 제공’으로 압축된다. 특정 분야 연구를 진행하는 의학자가 참고할 정보를 선별적으로 전달하거나, 병원 경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시행하는 식이다.

이 지원장은 “본원은 물론 각 지원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학술과 연구, 의료산업, 병원 경영 등 모든 의료 분야에 걸쳐 혁신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며 “분야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자 다각적인 방향에서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빅데이터 활용에 전제될 부분이 있다. 바로 ‘수요자의 빅데이터 인식 전환’이다. 그동안 대구지원은 외부 수요자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법의 테두리에서 정보를 아낌없이 제공해왔다. 하지만 심평원이 보유한 빅데이터의 가치에 주목하는 사람은 아직 많지 않은 편이다.

이 지원장은 “빅데이터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가 선결된다면 우리나라 의료 질을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구지원은 빅데이터 활용 및 인식 변화를 위해 지역 내 의과대학과의 공동 연구를 비롯해 의료기관 경영 개선 컨설팅, 관련 설명회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히히덕’ 웃음소리 가득한 대구지원

히히덕(Hira High Daegu Unit Communication & Know)은 대구지원에서 운영 중인 자체 소통 프로그램이다. 구성원 간 ‘서로 소통하며 알아가자’라는 의미로 최고의 조직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바람이 담겨 있다. 처음에는 본원의 다양한 소식 및 지원의 주요 의사결정 사항들을 정확하고 빠르게 알리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나, 현재는 소통 협의체로 발전하여 보다 적극적인 소통의 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워크숍 장소 결정, 가족친화프로그램 선택 등 지원 내 중요 사항을 관리자가 아닌 전 직원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고 있다. 이 지원장은 “함께 일하는 우리 식구들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업무의 질도 향상되고 요양기관의 만족도도 함께 높아진다”라고 말하며 “언제나 직원들의 의견과 건의 사항을 청취해 일하기 좋은 대구지원이 될 수 있도록 끊임 없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다짐했다.



Mini Interview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보건의료 발전 이끌 것”

우리나라 국민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려면 다양한 관계자와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이 중요합니다. 대구지원도 현장의 목소리 청취, 새로운 정보 공유 등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의 열린 소통을 강화해 국민 중심 의료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현 대구지원장



“지역의료진과의 원활한 소통창구가 되겠다”

보건의료 발전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본원뿐만 아니라 지원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제가 담당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진료 적정성 평가 역시 주민들의 건강권 제고를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료기관과 대구지원이 원활하게 소통하고 서로가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앞으로 대구·경북 지역 의료계와 요양기관, 심사평가원 대구지원의 소통 창구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김용룡 대구지원 지역심사평가위원장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에 충실하겠다”

의료기관의 각종 요청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국민에게 건강보험 제도 및 다양한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이 저의 주 업무입니다. 지역주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제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김범등 대구지원 심사평가부 과장



“지역주민과 의료계의 신뢰감 형성 우선”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진료비 심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양기관 중에서도 특히 진료비 청구를 어려워하는 지역 내 치과의원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숙지하여 보다 쉬운 설명으로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의료계가 신뢰할 수 있는 대구지원이 되도록 맡은 업무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권수진 대구지원 심사평가2부 대리



새로운 세계를 향한 개척자, 19인이 뭉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Sports 동호회'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E-Sports 강국이다.

1990년대 후반 전국을 강타한 '스타크래프트' 이래 우리 프로게이머들은

각종 프로게임 리그에서 챔피언 타이틀을 휩쓸어 왔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 절정을 달리는 '리그 오브 레전드'의 챔피언 타이틀 역시 우리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심평원 E-Sports 동호회의 주력 종목도 바로 이것이다.

직장 동료들과 게임으로 하나가 되어 심평원의 새로운 면모를 만들어나가는 E-Sports 동호회를 만났다.



문화로 자리매김한 E-Sports

리그 오브 레전드(이하 LOL)는 소위 '게임 좀 한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최고의 인기 게임이다. 5대 5 팀플레이로 진행되는 이 게임은 팀워크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는 까닭에 소통과 협력이 필수다. 심평원 E-Sports 동호회의 주력 게임도 바로 이 LOL인데, 캐릭터의 상호 보완적 관계와 협동이 중요한 특성 때문에 회원들 사이에는 끈끈한 전우애마저 생겼다.

초대회장이자 동호회 출범을 주도한 전산심사부 신범훈 과장은 "회원들과 함께 게임 속 전장인 '소환사의 협곡'을 누빌 때면 실제 전장에 나선 것 마냥 비장하기까지 하다"라며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며 상대 팀에 승리를 거둘 때가 가장 짜릿하다"고 게임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E-Sports 동호회의 정기모임은 한 달에 두 번이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적어 회원들은 평소에도 함께 전장을 누비곤 한다. 가끔은 미리 약속을 잡지 않더라도 본인 앞 PC방에 가면 다른 회원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어 자연스럽게 번개모임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단순히 직장 동료를 넘어 상호 간 유대감을 가진 '친구'로서 관계가 재정립된 셈이다.

신 과장은 "동호회가 출범된 지 이제 두 달째지만, 사실 그 전부터 삼삼오오 모여 게임을 하는 소모임은 운영돼 왔다"라며 "연고가 없는 지역에서도 같은 취미를 가진 동료들과 함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어 회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직원 사이에서 E-Sports 동호회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반면에 E-Sports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에서는 동호회 출범에 부정적인 시선도 없지 않았다. 그러던 중에 신 과장이 대표로 나서서 과감하게 동호회를 출범시켰다.

신 과장은 "손위 세대에게는 아직 어색한 분야인 게 사실이지만, E-Sports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정식 스포츠 종목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고, 대다수의 젊은이가 LOL을 즐겨하는 상황이다"라며 "만약 개인의 취미를 넘어 게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자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은 동료 선·후배가 있다면 하나부터 열까지 친절하게 코치해 줄 생각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심평원장배 E-Sports 대회' 개최 목표

일반적으로 중장년층 이상에서 E-Sports는 '오락'으로만 여겨져 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모바일 네이티브'인 10~30대는 물론 40대 이상 연령대에도 제법 게임 인구가 있을 만큼 E-Sports는 대중적인 취미로 자리매김했다.

신 과장은 "땀 흘리며 몸을 부딪치는 축구나 야구와는 그 특성이 다를 뿐, E-Sports 역시 타인과 부대끼며 경쟁하는 스포츠로서의 기본적인 프레임은 동일하다"라며 "앞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통해 E-Sports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끝으로 신 과장은 "원주로 이전해온 다른 공공기관 직원 중에도 LOL을 즐기는 인원이 상당하다"라며 "향후에 '심평원장배 야구대회'처럼 정식으로 공공기관 E-Sports 대회가 개최된다면 다수의 기관에서 참여할 것이다"라고 밝게 전망했다. 대표적인 팀제 E-Sports 종목으로 꼽히는 LOL은 다수의 동료와 함께 즐기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 헤드셋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직접 주고받는 소통 방식은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업무 일선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신속하게 최적의 전략을 정하고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함으로써 팀을 승리로 이끄는 일련의 과정에서 회원들은 단단하게 결속된 전우가 된다. 여기에서 얻은 '긍정 에너지'는 업무 수행에도 좋은 영향을 가져다준다.

심평원은 올해 11월부터 본원 서울사무소의 원주 2사옥 이전이 예정돼 있다. 원주본원의 몸집이 커지는 만큼 직원 간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상황. 함께 호흡하고 협력하며 승리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E-Sports 동호회처럼, 심평원도 하나로 똘똘 뭉쳐 새롭게 발전해 나아가기를 기대해본다.

세계적 암 전문 의료기관 정조준

지역민의 충실한 건강지킴이,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광주·전남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지역 거점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국내 유일의 암 특화 상급종합병원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높은 의료 수준을 자랑한다. 끊임없는 혁신과 변화로 암 정복에 출사표를 던진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의 행보를 함께 해본다.



특화 의료기관의 가치, '실효적 지원 방안 필요'

2004년 4월 개원한 화순전남대병원은 백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전남대병원에 뿌리를 두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행정 구역 중 군(郡)에 속한 화순전남대병원은 지역 거점 병원이자 암 특화 의료기관으로서 외래환자 내 중증 환자 비율이 98% 이상일 만큼 높은 의료 수준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심평원에서 시행한 4대암 적정성 평가에서 대장암·유방암 6년 연속 1등급, 폐암·위암 4년 연속 1등급을 획득하기도 했다.

정신 화순전남대병원장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암 특화 상급병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라며 "특정 분야의 독보적인 경험 및 기술을 지닌 의료기관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병원이라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사실 한 분야에 특화된 병원은 현재 의료 관련 제도에서는 일정 부분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소위 '종합평가'를 시행하기 때문에 한 부분에 힘을 쏟는 특화 병원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정 병원장은 "물론 어느 정도의 변화는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 병원이 잘하는 암치료 분야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특화 병원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라며 "환자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특화 병원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관련 제도 정비 및 지원 확대를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차세대 병원으로 거듭날 것'

국내에서 손꼽히는 암 특화 의료기관인 화순전남대병원은 암 정복을 위해 최첨단 의학 연구와 신의료기술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암세포만을 선별 제거하는 박테리아균주와 이를 인체 내에 투입해 암을 치료하는 극소형 박테리아로봇(전남대 공동 연구개발)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낸 것 역시 오랜 연구의 결과물이다.

정 병원장은 "현재 우리 병원은 새로운 암치료법으로 주목받는 면역치료의 핵심인 암치료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며 "병원 의료진들을 중심으로 독자적 면역세포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한 결과, 일부 혈액암이나 간암치료제 등은 이미 임상 2상 시험단계에 있을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라고 밝혔다.

'면역치료'는 현재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암 치료법이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유도해 암을 치료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수술 및 항암·방사선치료와 함께 할 경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지난 2011년 독일 프라운호퍼 IZI(세포치료 및 면역학 연구소)를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유치하는 데 성공, 현재까지 암 면역치료에 관한 다수의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의 가장 큰 '무기'는 각 분야에 특화된 다수의 전문가와 연구진을 보유했다는 점이다. 비용만 지불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살 수 있는 장비와 달리 전문 연구 인력 구축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 화순전남대병원은 개원 이래 꾸준히 전문 인력 양성에 주력해왔고, 현재에 이르러 세계적인 수준의 관련 인력을 보유하게 됐다. 지난 15년간 축적해온 방대한 암 관련 데이터 또한 병원이 지닌 강점이다. 암 정복이라는 의료계의 숙원을 이루는 데 현실성이 더해지는 이유다.

최근 국립암센터와 연계한 '5대 암 빅데이터 센터'에 선정된 것도 화순전남대병원의 능력을 방증하는 사례다. 암 빅데이터 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의료진의 최적화 진료를 위한 의사 결정을 지원함으로써 진단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한편, 불필요한 진단과 치료를 감소시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화순전남대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이하 광주지원)과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왔다. 광주지원과 소통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암 특화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광주지원 역시 화순전남대병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변의형 광주지원장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암 특화 의료기관이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것은 큰 자랑이자 자부심이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다각적인 방향에서 화순전남대병원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두 기관의 소통으로 얻은 가장 큰 성과는 '인식의 변화'였다. 한때 두 기관은 특정 부분에서 서로 의견이 다른 점도 있었다.

하지만 꾸준한 교류를 통해 이제는 주민들의 건강권 증진과 의료 환경 개선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동반자로 거듭났다. 서로 상호보완하는 상생의 관계, 화순전남대병원과 광주지원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는 까닭이다.



▲ 정신 화순전남대학교병원장

정 병원장은 "화순전남대병원 암 빅데이터 센터는 대장암·유방암·폐암·간암·전립선암 총 5개 암종에 관해 6만 2,000여 명, 평균 360여 개 항목의 임상진료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라며 "이를 활용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적재적소에 응용함으로써 혁신적인 암 진료 시스템 구축에 일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미래의 성장 동력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이 위치한 화순 지역은 지난 2010년 국내 유일의 '백신평구'로 지정됐다. 화순전남대병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메디컬 클러스터'와 생물의약품산업단지의 '바이오 클러스터'가 만나 국내 백신산업을 주도할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가 출범한 것이다.

정 병원장은 "화순 백신평구에는 의약품 연구·개발부터 제조까지의 전 과정이 특구 내에서 이뤄지는 원스톱 체제가 구축돼 있다"라며 "앞으로 지자체 및 유관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화순군을 세계적인 백신연구의 메카로 성장시키고자 한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외에도 화순전남대병원은 국가와 지역의 차세대 주력 산업인 생물의약품분야의 발전을 견인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특히 전라남도가 야심 차게 진행하는 '바이오 메디컬 허브 구축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는 가운데, 그 핵심이 될 화순백신산업특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협의체로 활약하는 것이다.

정 병원장은 "지역은 물론 우리나라 의료계의 혁신과 성장을 함께 하는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를 위해 병원 중심의 개방형 혁신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2020년부터 약 3년간 지상 7층, 지하 4층 규모의 '개방형 의료혁신센터' 건립 추진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 의료기관의 미래 경쟁력 제고에도 고심하고 있다. 자신들의 강점인 암분야의 깊이를 더하는 '선택과 집중'을 기반으로 빅데이터와 백신 같은 차세대 의료시스템 구축 및 연구·개발에 매진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의료기관을 선도할 화순전남대병원의 혁신적인 행보가 기대되는 이유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에 따른 분석심사 선도사업 안내



의료기술 발전, 고령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으로 진료비 심사물량과 의료 복잡성이 증가하고, 비용 효과성이 부족하여 비급여 대상으로 운영되던 의료영역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급여 대상으로 대폭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일률적인 심사기준 적용과 비용 효과성 중심의 심사방식에 따른 심사조정에 대한 부담으로 일각에서는 적정 진료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민에게 적정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고 의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심사평가체계가 바뀐다.

분석심사란

의료기관 진료 정보에 대해 주제별로 분석지표, 청구현황 등을 다차원으로 분석해 전문심사위원회에서 분석 결과와 의학적 근거, 진료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논의한 뒤 중재 방법을 결정하는 심사방식이다.

선도사업 기간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1년간 시행된다.

* 진료개시일 기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선도사업 기간은 변동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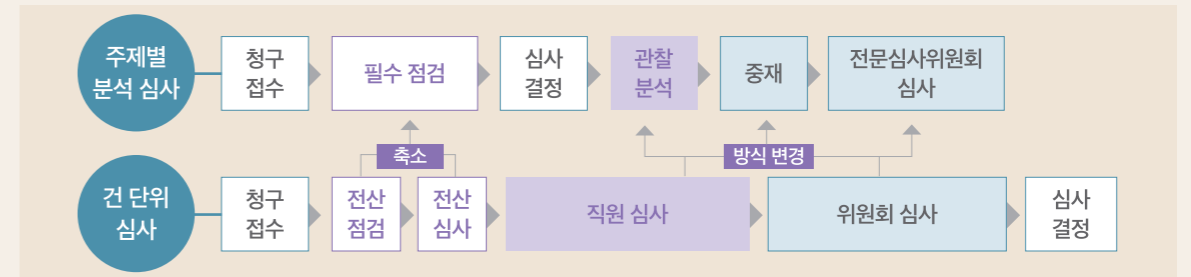
선도사업 대상

영역	대상(주제)	종별	목표	선정 사유	비고
만성 질환	고혈압	의원 (외래)	적절한 처방 및 관리를 통한 합병증 및 급성 악화 예방 (입원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과 비용 통합 관리 가능 항목 진료 인원 및 진료비 규모가 큰 사회적 관심 항목 	분석심사 모델 우선 적용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급성기 진료 (시술 포함)	슬관절치환술	전체 (입원)	합병증 없는 슬관절치환술 시행 및 슬관절 기능 개선 (재입원 감소)		
항목	자기공명영상진단 (MRI)	전체	환자에게 필요한 검사의 효율적 제공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사회적 관심 항목 	현재 모니터링 심사방식 유지
	초음파				

분석심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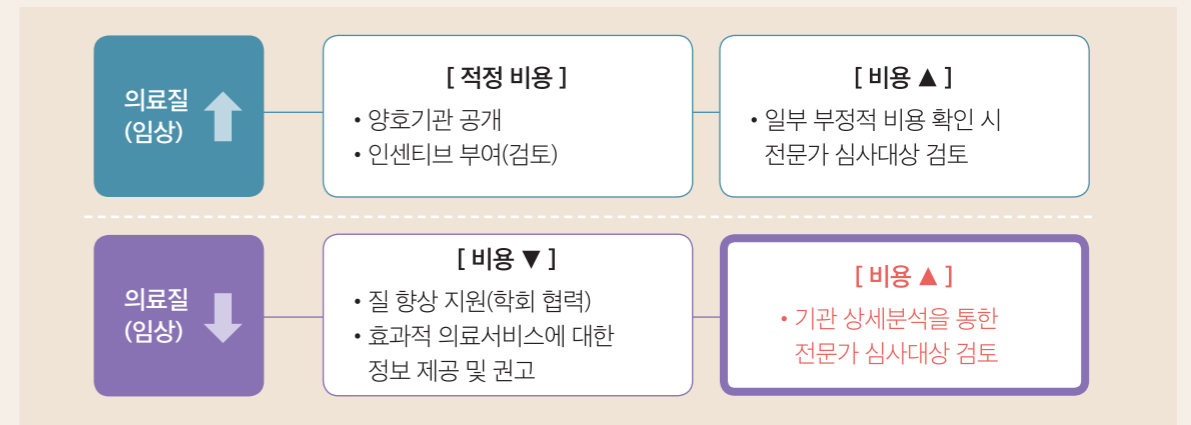
분석심사 절차는 3단계로 구분된다.

- (1단계) 필수 사항 점검 후 심사결정
현행 전산 점검·전산 심사 항목을 대폭 축소하고 기재·산정 착오, 약제 허가사항 및 급여기준, 의약품 안전사용, 의료자원 현황 등 필수사항만 점검(단 급여 기준, 심사 지침 등은 전산 점검·전산 심사 항목에서 제외)
- (2단계) 진료 정보에 대해 주제별 분석지표 값, 청구 현황 등 다차원 분석
- (3단계) 전문심사위원회가 분석 결과에 대한 검토를 거쳐 정보 제공, 서면·대면 컨설팅 등 중재 방법 결정
필요 시 소명 절차를 거쳐 변이가 지속·심화되는 기관에 대해서 심층 심사 실시



분석지표 값에 따른 기관 유형 및 중재 방법

'의료질(임상)이 전반적으로 낮으면서 비용이 높은 기관'을 우선 분석하여 중재 접근



분석심사 전문심사위원회의 운영

주제별·지역(권역)별 의료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2단계 전문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 전문가심사위원회(PCR)와 전문분과심사위원회(SRC)로 구분

- 전문가심사위원회(PCR)는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분석심사, 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
- 전문분과심사위원회(SRC)는 의학적 근거 기반의 심사 가이드라인 개발 등의 역할을 담당

분석심사 관련 정보 확인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https://biz.hira.or.kr>) > 업무안내 > 주제별 분석심사



Q&A

Q1. 분석심사를 하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 심사 시 공개된 의학적 근거(임상진료지침 등)가 급여기준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의학적 타당성에 기반한 적절한 진료를 한다면 심사조정에 대한 염려가 줄어듭니다.
- 의학적 근거 등 분석심사 정보는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를 통해 공개합니다.

Q2. 분석심사 대상 명세서 청구 방법이 달라지나요?

- 아닙니다. 청구 방법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접수된 명세서는 심사평가원에서 주상병과 제1부상병을 기준으로 분석심사 대상을 분류합니다.
- 의료기관에서 청구 시 필요한 임상정보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특정내역란도 신설됩니다. 다만, 미기재 시 불능이나 반송이 되지 않습니다.

Q3. 분석심사 대상은 기존 고시를 적용받나요?

-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우선 적용합니다.
- 다만, 기재·산정 착오, 환자 안전과 관련된 약제의 식약처 허가사항 및 세부사항 고시, 인력·시설·장비 등 의료자원 현황과 연계된 청구내역 등은 점검 대상입니다.

Q4. 모든 의료기관의 상위 5%를 삭감한다는데 맞나요?

- 아닙니다. 일부에서 진료비 상위기관에 대한 일률적 삭감으로 하향 평준화를 우려하고 있으나, 분석심사는 분기별(3개월) 심사 결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 기관별 중재유형을 분류하고, 전문심사위원회에서 중재 방법을 결정, 의학적 타당성 관점에서 심사하는 방식입니다.

Q5. 분석심사 결과에 따라 환수조치를 하나요?

- 분석심사에서 사후 환수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문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이후 진료분에 대해서만 그 결정에 따라 심사에 적용하고, 결정사항은 의료기관에도 사전에 안내하여 심사방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사로운 기억으로 추위를 녹이다, 서랍 속에 간직하고 싶은 나날

초록이 싱그럽던 봄과 햇벌이 따갑던 여름, 눈 깜짝할 사이 가을을 지나 겨울이 왔다.

외투를 헤집고 들어오는 시린 바람에 살이 에는 듯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겨울을 온기로 채워주는 것들이 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기에 어울리는 계절, 방 한구석에서 재미와 따스함이 느껴지는 이야기를 꺼내 보자.



영화 특특(Talk-Talk)

처음 만난 겨울과 다시 만나고 싶은 겨울의 꿈



옷장 문을 열면 펼쳐지는 동심의 왕국

나니아 연대기 -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

판타지 | 139분 | 전체 관람가

감독 앤드류 아담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을 피해 먼 친척의 집에 맡겨진 루시, 에드먼드, 수잔, 피터 4남매. 이들은 저택에서 술래잡기하던 어느 날, 마법의 옷장을 통해 나니아라는 환상의 나라를 발견한다. 한때는 꽃과 나무, 말하는 동물, 난쟁이, 목신, 켄타우로스 그리고 거인 등이 어울리며 함께 살던 아름답고 평화로운 나라였으나 사악한 하얀 마녀 제이디스의 저주로 나니아는 영원한 겨울이 반복되는 저주에 빠진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아이들은 용맹스럽고 신비로운 사자이자 나니아의 지도자인 아슬란의 지휘하에 하얀 마녀로부터 나니아를 해방하기 위한 모험에 가담하게 된다. 그리고 아이들은 나니아에 숨겨진 예언과 미지의 조력자를 만나면서 자신들의 운명과 나니아의 마지막을 결정지을 하얀 전쟁을 준비하게 된다.

영화의 원작이자 판타지 소설의 3대 거작이기도 한 <나니아 연대기>는 폭넓은 세계관과 가장 중요한 무기는 믿음이라는 순수한 메시지로 우리가 옷장 안으로 밀어두었던 동심과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만들어 준다.

겨울밤 느끼는 온기 지수



다시 사랑하게 하는 기억의 편린

이터널 선샤인

로맨스, SF | 108분 | 15세 이상 관람가

감독 미셸 공드리

어느 날, 평범한 회사원인 조엘은 일생에 단 한 번 있을 법한 충동적인 결심으로 아침에 회사가 아닌 문탁으로 가는 기차를 탄다. 문탁의 바닷가에서 클레멘타인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둘은 첫눈에 반한다. 그러나 클레멘타인의 활발한 성격과 조엘의 과묵한 성격은 엇갈리기 시작하고 크게 싸운 이후로 클레멘타인은 조엘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행동한다. 클레멘타인의 태도에 상처를 입은 조엘은 그녀가 자신을 잊기 위해 나쁜 기억을 잊게 해주는 라쿠나 회사를 찾아갔음을 알게 되고, 자신도 클레멘타인을 잊기 위해 그곳을 찾는다. 그러나 클레멘타인과 걸었던 얼어붙은 센강과 함께 나눴던 대화, 행동들이 잊혀가는 기억 속에서 점점 뚜렷해지고 조엘에게는 클레멘타인에 대한 망각이 사랑에 대한 상처보다 더욱더 두렵게 다가온다. 기억 속으로부터 도망치던 조엘은 클레멘타인과 만남이 문탁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님을 알게 되고... 그와 그녀는 라쿠나를 처음 방문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기억을 잃은 연인이 다시 사랑 할 수 있을까?

겨울밤에 느끼는 온기 지수



영화 특특(Talk-Talk)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가 전하는 겨울 풍경



인생의 기쁨이 눈처럼 내려오던 풍경

눈 속의 아르장퇴유

Snow scene at argenteuil

클로드 모네

캔버스에 유채, 71.1× 91.4cm, 내셔널 갤러리

‘빛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모네의 젊은 시절은 지극히 불우했다. 그를 대표하는 ‘인상주의자’라는 말조차 전통적인 화풍을 거부한 채, 사물이 빛의 움직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습을 그리는 화가를 비꼬는 말이었고 그림은 전혀 팔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그의 젊은 시절에 유일한 위안이 되던 순간은 아르장퇴유에 살던 날, 부인 까미유와 동료 마네, 르누아르와 함께하던 시간이었다. 색채의 유동성을 추구하던 모네에게 햇빛과 만나 역동적인 색채를 품어내는 눈발은 단순한 흰색의 세상이 아니었다. 모네는 눈과 서리에 매료당했다. 그 때문에 <눈 속의 아르장퇴유>에서는 푸른색, 보라색에 흰색을 섞어 농담을 달리한 화법과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지는 붓 터치로 인해 하얀 눈조차 빛에 따른 다양한 느낌을 자아낸다.

겨울밤에 느끼는 온기 지수



색채와 빛으로 채운 19세기의 겨울

눈 내린 풍경

Paysage de neige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

캔버스에 유채, 51×66cm, 오렌지 리 박물관

모네와 같은 인상주의자 화가이지만, 그림의 형상과 색채를 구분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르누아르는 밝은 색채와 구성으로 독자적인 화풍을 만들어냈다. 눈을 ‘자연의 전염병’이라고 표현한 그는 신경질적일 정도로 촘촘하게 차 있는 붓 터치로 빛을 흡수하는 검붉은 나무로 그려냈다. 노란색과 흰색, 무채색을 사용해 눈과 빛을 관찰하면서 색깔이 있는 그림자를 그려낸 그는 눈이 반드시 하얗지만은 않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면서, 눈이 주변 자연물의 색깔에 영향을 받음을 보여준다. 르누아르는 모네와 다르게 생동성보다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같은 회화기법을 추구했다더라도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그림이 탄생할 수 있었다.

겨울밤에 느끼는 온기 지수





초량 이바구길에 핀 이야기꽃



‘돌아와요. 부산항에’ 곡조가 흐르는 이곳은 부산항과 부산역이 자리 잡은 부산 동구다. 그곳에서도 초량동은 부산의 역사가 모여 있는 곳으로 갈매기 우는 소리보다 추억이 담긴 이야기가 더 많이 들려온다. 부산의 초량 이바구길을 남다른 사연이 있는 두 선·후배가 함께 걸으며 지난 추억과 다가올 내일을 얘기했다.



정 부장은 “내가 어릴 때 살던 동네도 이곳처럼 집들이 뼉뼉뼉했다”라며, ‘동구 인물사 담장’의 가수 나훈아 사진 앞에 서서 “어린 시절에는 나훈아가 가장 인기가 좋았지”라고 회상하고는 한 부장과 함께 웃었다.

‘담장 갤러리’와 ‘동구 인물사 담장’은 부산의 크고 작은 역사의 순간과 그 시대를 살아간 인물을 고스란히 사진으로 담은 소박한 전시장이다. 일본과의 무역을 위해 통상의 문을 연 부산항과 산업 혁명기, 베트남 파병 장병들의 출전 등 격동적인 삶의 순간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바라보면 마치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나는 듯하다.

흑백 사진에 담긴 세월의 고비를 넘다 보면 ‘168계단’에 다르다. 올라다보기만 해도 숨이 막히는 ‘168계단’은 6·25 전쟁 당시 피난민들과 일자리를 구하려고 고향을 떠난 외지인들의 목마름을 해소해 줄 우물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다. 현재는 계단 옆에 ‘168계단 모노레일’이 설치돼 있어 ‘168계단’을 쉽게 올라갈 수 있다. 모노레일을 타고 한눈에 보이는 초량동 풍경을 감상한 후, 두 사람은 ‘김민부 전망대’로 발걸음을 옮겼다. 전망대에서 부산항대교와 아름다운 도시 전경을 내려다보니 막힌 가슴이 탁 트인다.

그땐 그랬지, 초량동 동네 한 바퀴

선배 정원영 부장과 후배 한경임 부장의 인연은 199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신인 의료보험연합회의 종합병원 심사팀에서 시작됐다. 27년 동안 세 차례나 같은 부서에서 만나 파란만장한 시기를 함께한 두 사람은 어느덧 최고의 업무 파트너이자 눈만 마주쳐도 속뜻을 아는 사이가 됐다. 한 부장은 “지난해 겨울, 초량 이바구길을 혼자 걸었는데 감탄사가 나올 만큼 멋졌다”라며 “그때의 감동을 인생 멘토인 정 선배에게 소개하고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라고 이번 여행에 지원한 동기를 말했다.

지난 6월까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한 두 사람은 계절이 바뀌고서야 다시 만난 반가움에 서로를 향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부산역 7번 출구로 나오자 이바구길의 출발점이자 이번 여행의 시작점인 ‘(구)백제병원’이 보였다. 부산 최초 민간 종합병원인 ‘(구)백제병원’ 맞은편 출입구로 나와 작은 언덕을 오르니 손때 묻은 담장과 좁은 석조 계단이 눈에 띄었다. 부산의 다른 골목보다 유난히 예스러운 흔적이 느껴지는 것이 이바구길이 품은 아름다움이다.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부산과 두 사람

초량 이바구길에서 근현대의 삶과 휴식의 달콤함을 맛보고자 ‘168 도시락국’에서 걸음을 멈췄다. 메뉴는 ‘168 도시락국’의 주력 메뉴인 추억의 도시락이다. 고슬고슬한 쌀밥에 달걀부침, 매콤한 멸치볶음에 나물, 분홍 소시지 그리고 시래기국이 양푼 도시락통과 국그릇에 담겨 나왔다.





정 부장은 “학교 다닐 때 싸 들고 다니던 도시락통과 똑같다”라며 “이 정도 반찬이면 진수성찬이었지”라고 회상했다. 이바구길의 ‘단짠단짠’한 맛을 느낀 두 사람은 다시 모노레일을 타고 윗동네에서 내렸다. 바다를 감상했던 김민부 전 망대 맞은편에 ‘이바구 공작소’가 보였다. 주민들의 심터인 ‘이바구 공작소’ 위로 펼쳐진 구불구불한 언덕을 오르면 ‘산복도로’에 이르게 된다. ‘산 중턱을 지나는 도로’라는 의미의 산복도로는 동구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인다. 산비

탈에 자리 잡은 초량동 일대 판자촌 주민들과 산동네를 이어주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곳의 옛 주민들에게 ‘산복도로’는 고난과 고단한 삶의 상징인 것이다. ‘산복도로’를 따라 20분쯤 걸으면 호국도량(護國道場)이라 알려진 ‘금수사’의 입구가 보인다. ‘금수사’는 6·25전쟁 당시 부산지역 피난민을 품어준 역사의 현장이다. 정 부장은 “부산지원에서 산악동호회를 만들어 여러 절을 다녀봤지만, 이곳은 부산항과 금수사의 풍경이 어우러져 그중에서도 최고의 산행인 것 같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 부장은 “내년에 정년퇴임하는 정 선배의 모습도 이곳 풍경처럼 늘 변치 않았으면 한다”라며 두 손을 굳게 잡아주었다. 30여 년 같은 길을 걸어온 선배를 향한 후배의 남다른 애정과 존경의 마음이 보였다. 부산 동구는 지금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북항 재개발’을 꿈꾸고 있다. 문화, 예술, 관광에서 성과를 거두는 것도 떠난 사람들을 잊지 않고 새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반기기 때문이다. 부산의 관문인 동구의 앞날도,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름다웠던 두 사람의 다음 이야기도 궁금해진다.

Mini Interview



정원영
부장

한경임
부장

함께라서 행복했던 초량 이바구길

제가 사랑하는 후배인 한 부장과 함께라서 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부장의 긍정적인 성격이 저희 동행에 큰 연결고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온 시간보다 나아갈 시간이 더 기대되는 부산 동구처럼 저희도 지나온 시간과 지금의 시간을 소중히 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정원영 부장(부산지원 심사평가부)

아기자기한 맛이 있는 두벽이 여행길

저는 평소 걸어서 다니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가까이에서 천천히 보면 눈에 담기는 풍경이 아기자기하게 느껴지며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정 부장님과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다른 곳도 함께 여행하고 싶습니다.
한경임 부장(인천지원 심사평가부)



부산 동구의 맛과 멋 그리고 향기



초량 이바구길

경상도 사투리로 ‘이야기’라는 뜻의 ‘이바구’를 붙여, 부산 근현대 역사의 씨앗이 된 동구를 조명하는 테마 거리다. (구)백제병원을 시작으로 까꼬막 카페까지 초량 이바구 길이라고 부르며 과거와 현재를 잇는 ‘시간의 가교’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에도 과거를 훼손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거리 조성이 이뤄지고 있다.

- (구)백제병원: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09번길 16
- 까꼬막 카페: 부산광역시 동구 망양로600번가길 19



168 모노레일

168계단은 초량동의 산 윗동네와 아랫동네를 바로 연결하는 유일한 길이다. 경사 45도에 40m인 이 길을 모노레일로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다. 모노레일을 이용하면 이바구 정거장과 김민부 전망대, 장기려 더 나눔센터 등 주요 거점시설과 손쉽게 연결된다. 탁 트인 부산항 전망과 산복도로의 풍경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994-155



김민부 전망대

김민부 전망대는 불꽃 같은 생애를 살다간 동구가 낳은 천재 시인 김민부를 기리고자 설치됐다. 이곳에 서면 부산 앞바다가 훤히 내려다보여 관광객으로 붐빈다. 전망대 한쪽 벽면에는 그가 작사한 가곡 ‘기다리는 마음’의 글귀가 새겨져 있다.

- 부산광역시 동구 영초윗길26번길 14 / 051-440-4342



금수사(金水寺)

대한불교 원효종 소속의 사찰로 기개 높은 구계산에 자리한 금수사는 금당인 대광명전을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호국도량으로 이름이 높는데 기미독립선언의 민족대표 33명과 애국지사 22명의 위패를 봉안, 이들을 위한 추모 법회 및 수계 법회를 매년 봉행하며 팔만대장경 인경본을 모시고 있기 때문이다.

- 부산광역시 동구 망양로 533-1 / 051-467-3316



밤만 되면 식욕이 돋는다, 야식 증후군

늦은 밤까지 일하면 배가 고프다.
야근시간을 버티고자 야식을 먹는다.
한편 일찍 퇴근해서 저녁도 먹었지만
자기 전에 다시 야식을 찾기도 한다.
야식을 먹는 경우는 이처럼 다양하지만,
하루 식사량의 50% 이상을
오후 7시 이후 섭취한다면
야식 증후군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야식 유형에 따른 대처 방안을 살펴본다.

바쁘다 바빠! '하루 한 끼형'

떠지지 않는 눈을 억지로 뜨고 출근 시각에 빠듯하게 일어나 준비하다 보면 아침 먹을 시간이 없다. 아침은 거를 때가 대부분. 먹더라도 직장 근처 편의점 음식으로 간단히 때운다. 출근한 뒤 쌓인 일을 처리하다 보면 어느새 점심시간. 구내식당이나 배달음식은 늘 비슷해서 질리고, 밖에서 먹자니 맛있다고 소문난 식당은 모두 줄 서서 기다려야 한다. 결국 점심도 거르거나 먹는 둥 마는 둥 한다. 오후가 되면 허기지고 힘들다. 퇴근 시각 즈음, 이런저런 일을 마무리를 하다 보면 조금 늦게 일터에서 나온다. 집이 가까우면 그나마 낫지만, 퇴근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식욕이 금세라도 폭발할 것 같다.

종일 힘들게 일하고 밤에 한 끼를 먹는 경우는 세 끼 양을 한 번에 먹다 보니 과식하게 된다. 하지만 크게 나쁠 것도 없다. 하루 세끼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 먹나 한 번에 먹나 열량 자체는 같다. 이 경우 너무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지만 습관이 되는 것은 피하자.

뇌도 허기를 느낀다 '감정 식사형'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 과거 인류가 맹수에게 쫓기던 시절에는 죽을힘을 다해 달아나야 했다. 배고파도 위기를 벗어날 때까지 멈출 수 없었다. 위기를 벗어나야 그동안 억눌렀던 허기가 찾아오고 뭔가를 먹어 보충했다. 인류가 하루 세 끼를 먹게 된 것은 인류 전체 역사를 놓고 보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종일 뭔가에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다 보면 뇌도 굶주린다.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장소에서 벗어나 집에 오면 굶주린 뇌는 허기를 달래길 원한다. 그러다 보면 감정 식사를 하게 된다. 원래 인간은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그만 먹는다. 하지만 감정 식사는 멈추기 어렵다. 양만 느는 것이 아니다. 달거나 기름진 음식처럼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먹게 된다. 그래야 뇌가 허기짐에서 빨리 벗어나기 때문이다. 인간의 의지는 생각보다 약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도 야식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무언가로 풀어야만 한다. 힘들게 운동하고 다리에 국소성 근육경련(쥐가 난 상황)이 발생하면 릴랙스해야 한다. 스트레스를 받고 뇌에 쥐가 나면 뇌도 릴랙스해야 한다. 그런 이유로 누군가는 게임을 하고, 누군가는 술을 마시고, 누군가는 야식을 먹는다. 따라서 야식을 줄이고 싶다면 스트레스 자체를 줄여야 한다.

안주와 술이 만드는 악순환 '음주형'

술을 마시면 자연스럽게 안주도 먹게 된다. 그러다 보면 안주가 야식을 겸하게 된다. 그런데 술을 마시며 뭔가 먹는 경우 술을 마시지 않을 때보다 더 많은 음식을 먹는다. 술이 식욕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더구나 술을 마시면 충동

성도 올라간다. 술이 남으면 안주가 필요해서 뭔가를 더 먹고 안주가 남으면 술을 더 마시기 일쑤다. 그러다 보면 야식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술을 마시면서 야식을 안주로 삼는다면 술 마시는 행위를 중단해야 야식도 멈출 수 있다.

노는 게 노는 게 아니야 '불면형'

불면증에 걸린 경우 일찍 잠을 자려 해도 잠이 오지 않는다. 주변 사람이 보면 텔레비전·스마트폰을 보거나 게임을 하느라 늦게 자는 것 같다. 하지만 실은 반대다. 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워도 시계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리고 몸은 불편해진다. 억지로 누워 있으면 온갖 걱정이 떠오른다. 그래서 텔레비전·스마트폰을 보거나 게임 등을 한다. 그러다 보면 배가 고프고 무언가를 먹게 된다. 그리고 불면증에 걸리면 시간이 느리게 간다. 지루해진다. 심심하면 뭔가 더 먹게 된다. 이 경우 불면증을 치료해야 야식을 안 먹게 된다.

야식에 대처하는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의 자세

첫째, 눈앞에 보이는 야식거리를 치운다.

당장 손을 뺄 때 야식거리가 잡히지 않는다면 덜 먹게 된다. 밖에 나가 야식거리를 구매하거나 배달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과정 모두 조금 번거롭기 때문이다.

둘째, 몸에 좋은 음식으로 미리 배를 채운다.

일단 허기지면 그때는 통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허기지기 전에 섬유질이나 단백질이 풍부한 건강한 음식을 적당량 먹는 편이 좋다. '야식을 참을 수 있다'고 과신하지 말자.

셋째, 야식 먹을 타이밍을 만들지 말라.

집에서 무료하게 있을 때 야식을 먹는다면 산책이나 조깅을 한다. 특정 조건이 부합할 때마다 야식을 먹는다면 의식적으로 그 조건이 갖춰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HIRA News



바레인 수출사업 성공적 완료 기념행사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 9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 개혁 협력 프로젝트」의 성공적 완료를 축하하고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건강보험 제도와 시스템을 수출한 세계 최초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후속 유지관리 사업은 약 5년간 136억 원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셰이크 모하메드 빈 압둘라 알칼리파 바레인 보건최고위원회 의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2019년 국정감사 수감

10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번 국정감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 수감했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에 관한 내용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2019 대한민국 CEO 명예의 전당 대상 수상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10월 24일, '2019 대한민국 CEO 명예의 전당' 서비스혁신 부문에서 공공기관장 최초로 대상을 수상했다.

서비스혁신 대상은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 프로그램 마련 등의 우수한 경영 리더십을 발휘한 경영자에게 수여된다.

심사평가원은 강원도 원주시로 이전 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고객만족경영을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2019년 국가생산성대상 국무총리표창 수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월 16일, 서울 코엑스에서 '2019년 국가생산성대상'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국가생산성대상은 기업경영과 혁신활동을 통해 모범적으로 생산성을 향상한 기업 및 단체에 수여하는 정부포상제도다.

김선민 기획상임이사는 이날 "업무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국민의 의료 안전 강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고객센터 6년 연속 우수콜센터 선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월 17일,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2019 KS-CQI 콜센터 품질지수 인증식'에서 공공기관 부문 우수콜센터로 선정되었다.

심사평가원 고객센터는 이번 수상으로 6년 연속 수상에 빛났다.

김선민 기획상임이사는 이날 "앞으로도 고품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건강보험 급여등재 아카데미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 24일, 서울사무소에서 의료기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등재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아카데미에는 약 200명이 참석했으며, 의료행위·치료재료 급여등재 절차 등 정보를 공유하고 의료기기 산업계와 상생·협력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9 강원 의료기기전시회 보험등재 컨설팅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벨리에서 개최된 「2019 강원 의료기기전시회(GMES)」에 참여했다.

이 행사에는 국내 의료기기 우수 제품 홍보 등을 위해 90여 개의 기업이 참여했다.

심사평가원은 이날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제품별 보험등재 가능성, 급여인정 범위 등 '1:1 보험등재 무료 컨설팅'을 진행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섰다.



LETTER
독자의 편지

번아웃 증후군에 대한 기사가 많이 와닿았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분들이 번아웃 증후군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약국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기사 내용을 알려드리고 개선 방안을 상담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 대구시 달서구 김태영 님 -

월간 텀블러 캠페인 기사를 보고 텀블러를 다시 꺼내 씻어 놓았습니다. 몇 번 가지고 다니다가 그만뒀었는데, 앞으로는 저도 텀블러 캠페인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플라스틱 사용으로부터 우리 환경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 시흥시 박난희 님 -

합창동호회 심Phony 소개 글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공공기관은 동호회 활동이 그다지 활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심평원은 어딘가 다르네요. 음악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많은 이에게 아름다운 멜로디를 선사하는 심Phony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 경기도 안산시 황병호 님 -

CONGRATULATION
당첨을 축하합니다

2019년도 9-10월호 독자엽서 당첨자

구영선(울산시 울주군), 김경희(강원도 강릉시), 김다영(경기도 광명시), 김미정(전북 김제시), 김민정(서울시 관악구), 김태영(대구시 달서구), 김태운(서울시 강서구), 박난희(경기도 시흥시), 박윤희(경기도 광명시), 배민서(전남 여수시), 안동원(인천시 부평구), 오새임(충북 청주시), 이동렬(경기도 하남시), 이창준(인천시 연수구), 장인선(강원도 춘천시), 정은정(부산시 연제구), 정영희(서울시 관악구), 채라윤(전남 여수시), 최정희(전북 순창군), 황병호(경기도 안산시)

좋은 의견과 함께 퀴즈 정답을 맞힌 독자분들에게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REQUEST
구독 신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구독은 '웹진(hirasabo.or.kr)' > 구독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은 웹진(hirasabo.or.kr)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강 심평원이 지킵니다

국민이 낸 진료비가 적절했는지
국민이 다니는 병원이 진료를 잘 하는지
국민이 먹는 항생제는 적정하게 처방되었는지

진심을 다해 심사하고
공정하게 평가합니다.

진심과 공평 심 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고모델
국가대표 골키퍼 조현우



[정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사옥 이전 안내]

- 대상 | 본원 서울사무소 소재 부서(11개)
고객홍보실, 급여보장실, 급여등재실, 약제관리실, 심사기획실, 심사실, 심사관리실, 의료급여실, 자동차보험심사센터, 혁신연구센터, 심사기준실
- 일정 | 2019. 11.29. ~ 12.16. ※ 부서별 순차적 이전 예정
- 장소 | 본원 원주2사옥(HIRA 2동) :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30(반곡동 2047-14)



의약계 안내사항

요양기관 관계자가 꼭 알아야 하는 알짜 정보를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이 알기 쉽게 소개합니다.

-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실시(2020년, 2주기 2차) 44
- 관상동맥우회술 5차 적정성 평가 결과 46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전산통보 시행 50
- 수지접합 전문병원 지정 제도 52
-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 기준 개선 54
- 결핵 적정성 평가 결과(2018년도, 1차) 57
- 당뇨병 관리를 위한 포스터·리플릿 활용 안내 60

※ 상기 기간 중 이전 대상 부서와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계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실시 (2020년, 2주기 2차)

평가 배경

-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이하 요양병원 평가)는 요양병원 입원수가(일당정액제)로 인한 의료 서비스 과소 제공을 방지하고 전반적인 요양병원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2008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 이후 10년간 평가를 통해 요양병원의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 질적 수준이 향상됐고 요양병원 간 편차도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요양병원의 병원으로서 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합리적 병원 선택을 위한 평가 결과를 제공하고자 「2020년 2차 요양병원 평가」를 시행합니다.

평가 목적

- 진료 영역 중심의 의료 서비스 질 관리를 통해 입원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요양병원이 자율적으로 의료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2020년 요양병원 평가 개요

평가 대상

대상 기간	2020년 1~6월(6개월)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입원진료분
대상 기관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를 청구하는 모든 요양병원 ¹⁾ ※ 단, 호스피스 시범사업 대상 건 제외

1)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요양병원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평가 기준(평가 지표)

- 핵심 지표 총 14개 지표(인력 지표 4개, 진료 지표 10개)를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구분	지표명	가중치(점)	
구조 영역 (4)	구조 영역 소계	30	
	의사 1인당 환자 수	균등 분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간호 인력 1인당 환자 수		
	약사 재직일수율		
진료 영역 (10)	진료 영역 소계	70	
	과정 (2)	과정 지표 소계	11
		유치도노관이 있는 환자분율	5
		치매 환자 중 MMSE검사와 치매척도검사 실시 환자분율	6
	결과 (8)	결과 지표 소계	59
		전월 비교 5% 이상 체중 감소 환자분율	6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	12
		욕창 개선 환자분율	10
		중등도 이상의 통증 개선 환자분율	10
		일상생활수행능력(ADL) 개선 환자분율	10
		당뇨병 환자 중 HbA1c 검사 결과 적정 범위 환자분율	7
		장기 입원(181일 이상) 환자분율	2
		지역사회 복귀율	2

평가 자료 및 평가 방법

- 평가 자료는 요양기관 현황 자료, 요양병원 차등제 신고 자료,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및 환자평가표, 행정안전부 사망 자료를 활용합니다.
- 평가 방법은 각 평가 지표별로 표준화 과정을 거쳐 가중치를 반영한 후 기관별로 종합 점수를 산출해 국민이 알기 쉽도록 1~5등급으로 평가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평가 결과 활용 (2021년 12월 공개 예정)

- 결과는 국민이 의료 이용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원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또한 요양병원별로 평가 결과와 비교 정보를 제공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요양기관 대상으로 질 향상 지원을 합니다.

*요양병원 평가 세부계획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 알림 > 공지사항」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상동맥우회술 5차 적정성 평가 결과

평가 배경 및 목적

- 허혈성심질환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 심장 근육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이뤄지지 못해 생기는 질병으로 심근경색증, 협심증 등이 대표적입니다.
- 허혈성심질환의 치료법으로 약물치료, 관상동맥우회술,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등이 있으며, 광범위한 관상동맥질환, 좌심실 수축 기능이 저하된 경우 또는 좌주간지 관상동맥협착의 경우에는 관상동맥우회술이 더 권장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평가 대상

대상 기간	2017년 7월~2018년 6월(1년)
대상 기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중 관상동맥우회술 실시 기관
대상 환자	허혈성심질환(주·부상병)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을 실시한 입원 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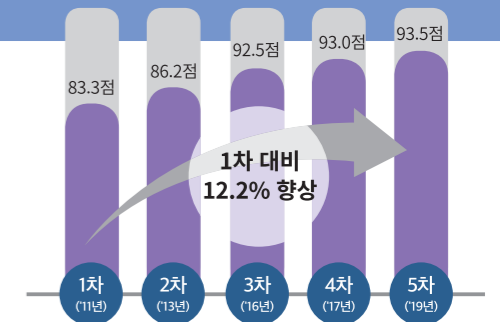
평가 기준(평가 지표)

구분	지표명	
평가 지표	진료량	관상동맥우회술 수술량
	과정 지표	내흉동맥을 이용한 관상동맥우회술률
		퇴원 시 아스피린 처방률
	결과 지표	수술 후 출혈이나 혈종으로 인한 재수술률
사망률(입원기간 내 / 퇴원 7일 내 / 수술 후 30일 내)		
수술 후 입원 일수		
모니터링 지표	과정 지표	관상동맥우회술 전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시행률
		동반수술률(대동맥 / 판막 / 좌심실류 / 경동맥 수술 / 심실중격결손)
		무펌프 관상동맥우회술 시행률
		관상동맥우회술 후 24시간 내 발관율
	결과 지표	관상동맥우회술 피부 절개 전 1시간 이내 최초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
		수술 후 감염(중격동염 포함) 으로 인한 재수술률
		관상동맥우회술 후 재입원율(퇴원 7일 내 / 퇴원 30일 내)
		건당 입원일수(입원일수 장기도지표)
		건당 진료비(진료비 고가도지표)

평가 결과

• 종합점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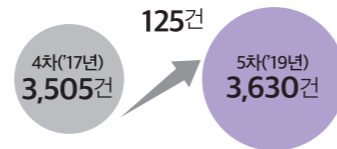
5차 평가 결과 종합점수는 93.5점으로
1차 평가 83.3점 대비 12.2% 향상됐습니다.
이는 요양기관의 의료서비스 수준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 지표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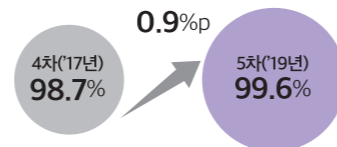
관상동맥우회술 수술량(높을수록 좋음)

허혈성심질환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환자 수로 의사의 숙련도를 나타내며, 의사의 풍부한 수술경험은 좋은 평가 결과와 관련이 높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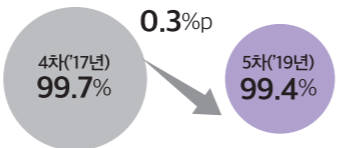
내흉동맥을 이용한 관상동맥우회술률(높을수록 좋음)

흉골 안쪽에 있는 내흉동맥(속가슴동맥)으로 관상동맥우회술 시 장기간 혈관 유지가 가능하며 생존율을 높이고 재발율을 낮추는데 효과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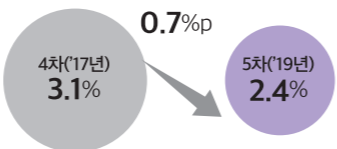
퇴원 시 아스피린 처방률(높을수록 좋음)

수술 후 아스피린의 지속적인 복용은 심장혈관이 다시 막히거나 좁아지는 장기 합병증 및 사망률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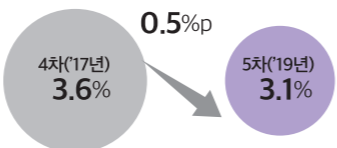
수술 후 출혈이나 혈종으로 인한 재수술률(낮을수록 좋음)

수술과 관련된 안전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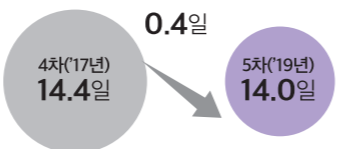
수술 후 30일내 사망률(낮을수록 좋음)

관상동맥우회술 후 30일 내에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며, 질 평가로서 매우 의미있는 지표입니다.



수술 후 입원일수(낮을수록 좋음)

기관간 수술 후 입원일수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권장되는 지표입니다.



평가 결과 공개 및 등급 기관 권역별 분포 현황

- 평가 결과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한 결과, 관상동맥우회술 1등급 기관은 64기관입니다.
- 기관별 상세 평가 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건강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병원·약국 > 병원평가정보 > 급성질환 > 관상동맥우회술
* 건강정보 모바일 앱 > 병원평가정보 > 급성질환 > 관상동맥우회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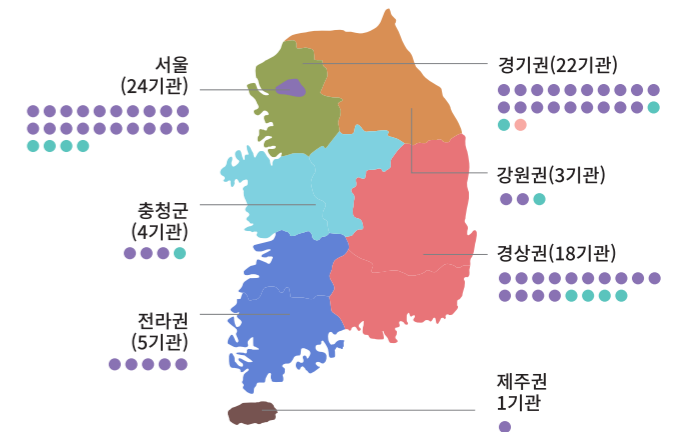
평가결과 등급별 현황

☞ 종합점수 구간에 따라 5등급으로 공개
종합점수 미산출 기관 등급제외로 공개 ☜



평가 등급 기관 권역별 분포 현황

● 1등급 64개 ● 2등급 12개 ● 3등급 1개 (총 77기관)



등급	점수 구간	기관 수
	전체	77기관 (100.0%)
①등급	90점 이상	64기관 (83.1%)
②등급	80점 이상 ~ 90점 미만	12기관 (15.6%)
③등급	70점 이상 ~ 80점 미만	1기관 (1.3%)
④등급	60점 이상 ~ 70점 미만	-
⑤등급	60점 미만	-
등급 제외	지표별 분모 3건 미만	7기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전산통보 시행

개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에 인쇄물로 통보하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2019년 9월부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산통보 시스템*으로 전환했습니다.

*E-평가자료제출시스템(<http://aq.hira.or.kr>)을 통한 정확하고 신속한 평가 결과 통보

· 기존의 서면 통보는 우편물 분실 우려가 있고, 통보서 제작·발송 등에 평균 30일 정도 소요돼,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며 비용이 저렴한 방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

· 평가가 완료되면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에 결과를 등록하고, 요양기관에는 문자 서비스(SMS)로 알려주게 되며, 요양기관은 평가 결과 공개와 동시에 확인이 가능하고 상시적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가 결과를 이해하기 쉽도록 평가 항목별로 달랐던 결과 통보 서식을 표준화하고 필요할 때마다 평가 결과를 다운로드하거나 출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적정성 평가 결과를 전산시스템으로 통보 받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행정절차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전산통보 여부에 대해 사전 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2019년 9월부터 E-평가자료제출시스템(<http://aq.hira.or.kr>)으로 요양기관의 평가 결과 '전산통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평가결과 전산통보 신청 및 평가결과 확인

1. 국민홈페이지(www.hira.or.kr) 접속 후
홈페이지 하단 E-평가자료제출시스템 선택



2. 접속 후 메뉴 상단에 ① 평가결과 → 적정성 평가 → ② 평가결과 통보서 선택



3. (신청 방법) 왼쪽 평가결과 통보서 메뉴에서 ① 평가결과 전산통보 신청 → 오른쪽 하단 ② 전산통보 신청



4. (결과 확인) 평가결과 통보서 메뉴에서 ① 평가결과 통보서함 ② 평가항목 및 년도, 차수 선택 후
오른쪽 상단의 통보서 ③ 저장 및 출력 클릭 ④ 출력 및 다운로드





수지접합 전문병원 지정 제도

수지접합 전문병원이란 ?

- 수지접합 수술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기관 중에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의료 인력', '필수 진료 과목', '병상 수', '의료 질', '의료 서비스 수준' 총 7가지 지정기준을 모두 통과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지접합 전문병원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합니다.

수지접합 전문병원 지정 기준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 진료 과목	전문인수	최소 병상 수	의료 질	의료 서비스 수준
MDC 'I'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 및 장애, MDC 'X' 외상, 중독 및 약물의 독성 효과 45% 또는 66% 이상*	연 환자수 193명 이상	정형외과 또는 성형외과, 내과	8명 이상 (정형외과, 성형외과)	80병상	70점 이상	인증

* 환자구성비율: 한 가지 주요 진단 범위에 속할 경우 45%, 두 가지 주요 진단 범위에 속할 경우는 66%임

수지접합 전문병원 의료 질 평가

- 국민에게 보다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수지접합 전문병원을 대상으로 의료 질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 지표는 병원의 전문 인력 등을 평가하는 구조 지표 4개, 진료 과정 등을 평가하는 과정 지표 6개, 결과 지표 5개 총 1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지접합 전문병원 의료 질 평가 지표

구분	평가 지표
구조(4)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 수
	상시 응급수술 지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유무
	상시 응급수술 지원 임상병리사 유무
	상시 응급수술 지원 방사선사 유무
과정(6)	병원 도착 후 수술 시작까지의 소요 시간
	수술 후 24시간 이내 수술 부위 컬러 사진 촬영률
	수술 전 혈행 관찰률
	수술 후 혈행 관찰률
	재활 치료 계획 수립률
운동 범위(ROM) 측정 평가 실시율	

구분	평가 지표
결과(5)	완전 절단 환자 수술 성공률
	불완전 절단 환자 수술 성공률
	수지침부[DIP 이하(zone 1)] 절단 환자 수술 성공률
	입원일수 장기도지표(건당 입원일수, LI)
	진료비 고가도지표(건당 진료비, CI)

수지접합 전문병원 현황

- 3기(2018~2020) 수지접합 전문병원은 현재 4기관이 지정돼 있으며, 경기도 1기관, 인천광역시 1기관, 대구광역시 1기관, 부산광역시 1기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지접합 전문병원 현황

요양기관명	지역	대표 전화번호
의료법인성세의료재단 뉴성민병원	인천광역시 서구	032-726-1000
더블유병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053-550-5525
예손병원	경기 부천시	032-717-1652
의료법인센텀의료재단 서부산센텀병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051-329-3025

전문병원 확인 방법

- 전문병원은 별도의 마크를 사용하여 광고하고 있으니, 마크로 확인이 가능하며, 수지접합 분야 이외의 전문병원 명단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병원 마크		전문병원 명단 확인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 병원·약국 > 병원·약국 찾기 > 세부 조건별 찾기 > 병원 규모별 전문병원
------------	--	-----------------	---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 기준 개선

배경 및 목적

•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난 10월 4일 「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43호, 2019.7.2.)을 일부 개정·발령했습니다.

이는 ‘의료인 등 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 기준(제9조 제5항 관련)’의 간호 인력 산정 기준을 실제 근무한 일수로 적용하고 단시간 근무 간호사의 부분 근로 시간을 인정하는 등 최근의 변화를 반영해 인력 산정 기준을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5호,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일: 2020.7.1.).

- 의료인 등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 기준의 개선
 - 간호 인력 산정 기준을 매월 15일자 근무기준에서 실제 근무한 일수를 기준으로 변경
 - 간호사에 의한 부분적 근로시간을 세분화하여 인정하고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비율 명시 등
- 인력기준 변경에 따른 서식 정비
-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 현황 통보서를 제출기한이 지나 제출하더라도 지연 사유가 인정되면 등급 인정



간호 인력 산정 방법

현행	개선
직전 분기 평균 (각 월의 15일 기준)	전전 분기 마지막 월 15일~전 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재직일수의 평균

계약직·단시간 근무 간호 인력 산정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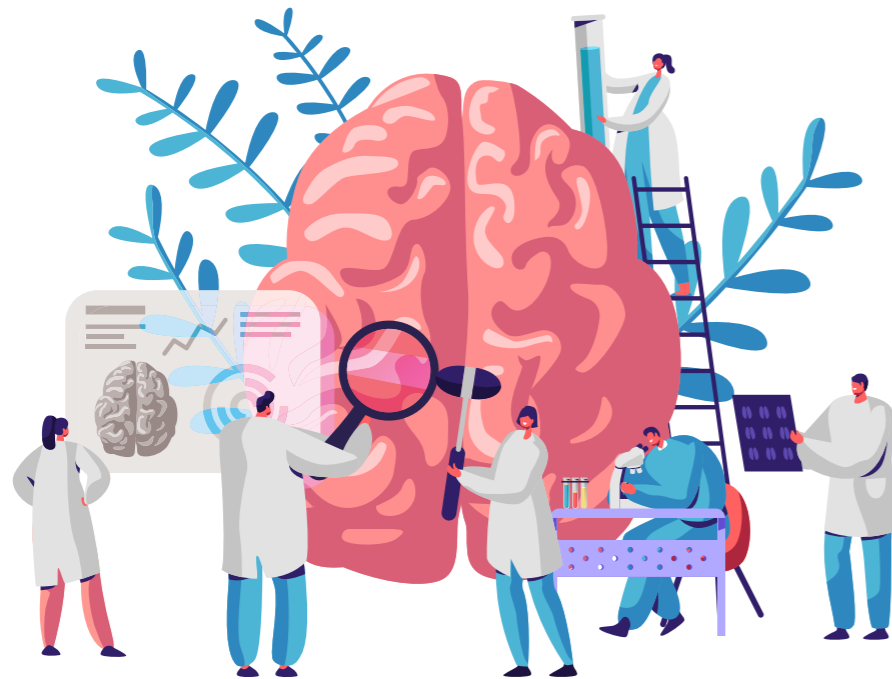
현행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명칭: 임시직 간호인력 • 근무기간: 44시간(40시간)/1주 • 계약기간: 3개월 • 산정기준: 3인을 2인으로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명칭: 계약직·단시간 근무 간호인력 • 근무기간: 40시간/1주 • 계약기간: 현행과 동일 • 산정기준: 현행과 동일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휴가자를 대체하는 간호사는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 이상인 근무자의 경우 1인으로 산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시간 근무 산정기준 마련 <table border="1"> <tr> <td>16(이상)~20시간(미만)근무자</td> <td>0.4인</td> <td>28(이상)~32시간(미만)근무자</td> <td>0.7인</td> </tr> <tr> <td>20(이상)~24시간(미만)근무자</td> <td>0.5인</td> <td>32(이상)~36시간(미만)근무자</td> <td>0.8인</td> </tr> <tr> <td>24(이상)~28시간(미만)근무자</td> <td>0.6인</td> <td>36(이상)~40시간(미만)근무자</td> <td>0.9인</td> </tr> </table> <p>*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각각 0.5인, 0.6인, 0.7인, 0.8인, 0.9인, 1인으로 산정</p>	16(이상)~20시간(미만)근무자	0.4인	28(이상)~32시간(미만)근무자	0.7인	20(이상)~24시간(미만)근무자	0.5인	32(이상)~36시간(미만)근무자	0.8인	24(이상)~28시간(미만)근무자	0.6인	36(이상)~40시간(미만)근무자	0.9인
16(이상)~20시간(미만)근무자	0.4인	28(이상)~32시간(미만)근무자	0.7인										
20(이상)~24시간(미만)근무자	0.5인	32(이상)~36시간(미만)근무자	0.8인										
24(이상)~28시간(미만)근무자	0.6인	36(이상)~40시간(미만)근무자	0.9인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고용비율 계약직 간호사를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비율은 100분의 80으로 함.												

인력 산정 제외대상

현행	개선
분만휴가자(1개월 이상 장기유급휴가자 포함)	연속적 부재 기간 16일 이상인 자

제출 기간 도과에 따른 조치

현행	개선
매분기 마지막 월 20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의료급여기관인 경우 기관등급 G5로 산정	적용 분기 전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된 기관 등급을 적용



결핵 적정성 평가 결과 (2018년도, 1차)

평가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는 보건 의료 수준의 향상 및 사회 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결핵 환자 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 이에 결핵 진료에 대한 질 향상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국가 결핵 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자 결핵 적정성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평가 대상

- 1차 결핵 적정성 평가는 2018년 1월~6월까지 결핵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V000)가 적용된 외래 또는 입원 환자를 진료한 요양기관(620개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 * 제외: 정액 청구로 진료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기관(요양병원, 보건기관 등)
- 대상 환자는 2018년 1월~6월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된 결핵 신환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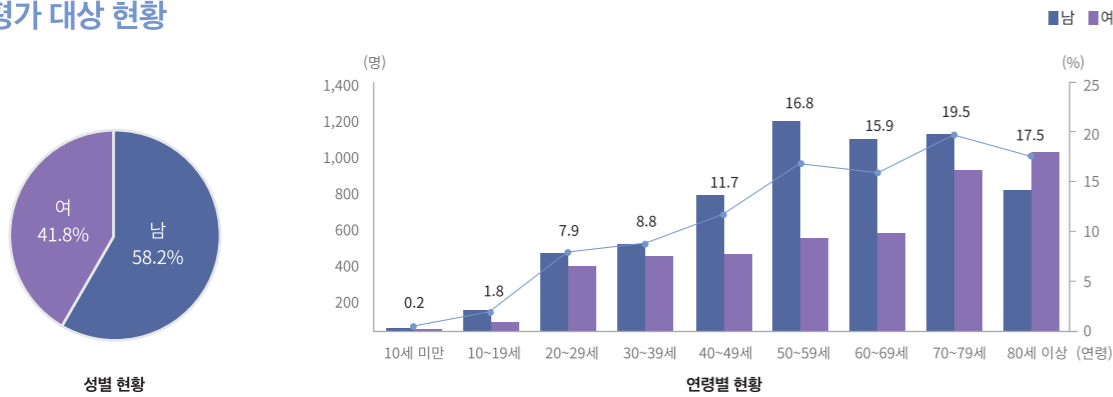
평가 기준(평가 지표)

구분	지표명	지표 정의
진단의 정확도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호흡기결핵 신환자 중 항산균도말검사를 실시한 환자 비율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호흡기결핵 신환자 중 항산균배양검사를 시행한 환자 비율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호흡기결핵 신환자 중 결핵균 핵산증폭검사를 실시한 환자 비율
초치료 처방 준수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	결핵 신환자 중 초치료 표준처방을 준수한 환자 비율
결핵 환자 관리 수준	결핵환자 방문 비율	결핵 신환자의 지속 관리를 위해 방문하는 평균 내원 비율
	약제처방 일수율	결핵 신환자의 결핵 약제를 처방받은 일수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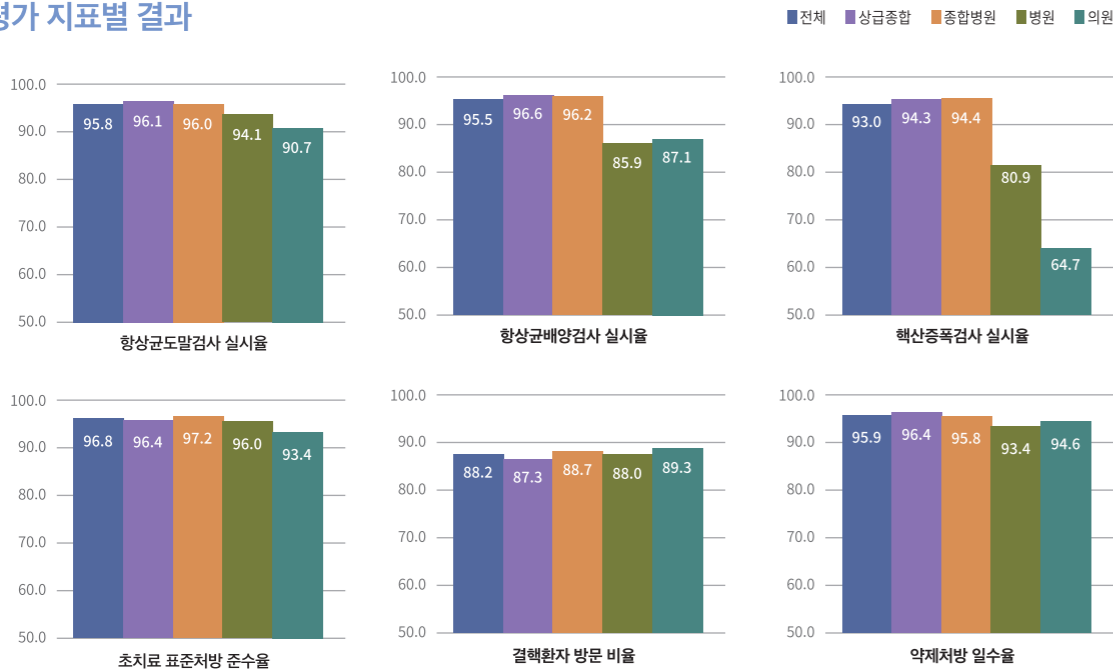
평가결과

- 결핵 신환자는 남성(5,995건, 58.2%)이 여성(4,302건, 41.8%)보다 많고 특히 70세 이상 고령(37.0%)에서 많았습니다.
- 남성은 50대부터 여성은 70대부터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증상이 없더라도 매년 결핵검진을 받는 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평가 지표는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이 96.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결핵 환자 방문 비율은 88.2%로 가장 낮게 나타나 결핵 환자의 주기적 방문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대상 현황



평가 지표별 결과



평가 결과 공개 및 활용

- 결핵 적정성 평가는 지표별, 요양기관 종별, 지역별로 결과를 공개합니다. 국가결핵관리 정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 기관 및 학회, 협회 등에 평가 결과를 제공하며, 평가 결과 일정 수준 이하 기관에 대해서는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 병원·약국 > 병원평가정보 > 평가수행항목 > 기타 > 결핵

향후 계획

- 1차 평가결과 및 3차 세부계획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 등을 위해 요양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2019년 1월~6월 신환자 대상으로 결핵 2차 평가가 진행 중이며 결과는 '20.10월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당뇨병 관리를 위한 포스터·리플릿 활용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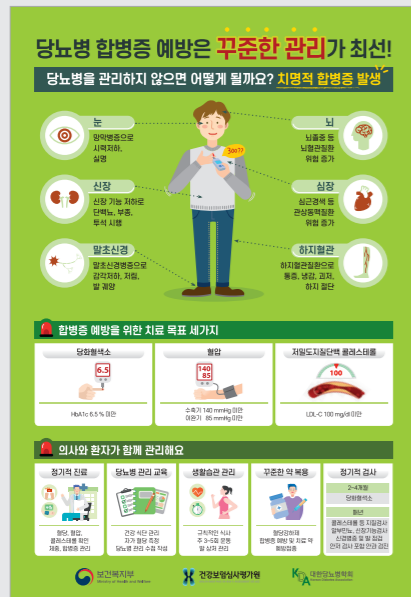
세계 당뇨병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당뇨병학회 공동 제작

· 당뇨병이란 체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해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상태로 잘 조절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하는 만성질환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매년 당뇨병 적정성 평가 결과를 요양기관에 안내하고 평가 결과가 양호한 동네 의원을 국민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당뇨병 환자 관리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당뇨병의 날(11월 14일)을 맞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당뇨병학회가 공동으로 당뇨병 환자 진료와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포스터와 리플릿을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당뇨병의 꾸준한 관리로 질병 악화 및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물 게시 위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 공지사항 > 게시번호 3922



포스터



리플릿

당뇨병 합병증 예방은 꾸준한 관리가 최선!

당뇨병을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치명적 합병증 발생!



합병증 예방을 위한 치료 목표 세가지

<p>당화혈색소</p> <p>HbA1c 6.5 % 미만</p>	<p>혈압</p> <p>수축기 140 mmHg 미만 이완기 85 mmHg 미만</p>	<p>저밀도지질단백 콜레스테롤</p> <p>LDL-C 100 mg/dl 미만</p>
---	--	---

의사와 환자가 함께 관리해요

<p>정기적 진료</p> <p>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확인 체중, 합병증 관리</p>	<p>당뇨병 관리 교육</p> <p>건강 식단 관리 자가 혈당 측정 당뇨병 관리 수첩 작성</p>	<p>생활습관 관리</p> <p>규칙적인 식사 주 3~5회 운동 발 상처 관리</p>	<p>꾸준한 약 복용</p> <p>혈당강하제 합병증 예방 및 치료 약 예방접종</p>	<p>정기적 검사</p> <p>2~4개월 당화혈색소</p> <p>매년</p> <p>콜레스테롤 등 지질검사 알부민뇨, 신장기능검사 신경병증 및 발 점검 안저 검사 포함 안과 검진</p>
---	---	--	--	---